

김백선展

KIM Paik Sun



전시개요

전 시 명 : 김백선展

전시기간 : 2016년 10월 5일(수) - 10월 30일(일)

전시장소 : 학교재갤러리 전관

문 의 : 02-720-1524~6

출 품 작 : 25점

담 당

김한들 hkim@hakgojae.com

02-739-4937

1. 전시 개요

학교재갤러리에서는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건축가 겸 디자이너 김백선(1966, 목포)의 개인전을 연다. 김백선은 대안공간 루프, 한남동 UN빌리지 빌라, 페럼타워 공용공간 등을 설계해 널리 알려졌다. 최근에는 롯데 월드타워의 레지던스와 커뮤니티 공간을 설계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동양화과에 재학 중이던 1989년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09년 디자인진흥원장상, 2010년 협회장상, 명가명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전시는 김백선이 2007년 전주시의 공예 브랜드 '온'을 통해 무형문화재의 협력해 가구를 선보인 이후 십 년 만에 생활 디자인으로 대중을 다시 만나는 자리다. 테이블, 소파, 의자, 조명 등 작가가 직접 디자인한 가구 25점을 소개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디자인을 높이 평가한 이탈리아 대표 가구 기업 프로메모리아와 뽀로, 판티니에서 협업, 제작을 도왔다는 것이다. 건축가, 공간 디자이너, 아트 디렉터로 활동하며 작업한 김백선의 아카이빙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김백선은 동양화에서 빌려온 철학을 바탕으로 현대적 작업을 펼친다. 그에게 공간과 그 안에 놓이는 것은 전통과 현대 사이, 또한 자연과 예술적 영감 사이를 소통하고 통섭하는 현장이다. 학교재갤러리는 이번 전시를 통해 김백선 디자인에 대한 철학과 그가 제안하는 생활 속의 디자인을 대중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2. 작가 소개

김백선은 산과 바다가 지척에 있는 목포에서 나고 자랐다. 초등학교 6학년 겨울, 아버지가 들고 온 달력에서 본 눈 오는 설산을 모사하며 수묵화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중2때 할아버지가 소개해주신 동양화 선생님 아래서 체계적인 수묵화 공부를 시작했다. 홍익대학교 동양학과에 입학하였으며 대학 4년 때인 1989년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화가로 촉망받는 데뷔를 했다.

동양화가로서 깊이 있는 작업을 시작할 즈음 그는 소재를 다양하게 써서 선배 동양화가들이 하지 못한 특별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자신만의 작업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했다. 건축처럼 규모가 큰 공간 작업에 대한 열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포트폴리오를 들고 무작정 인테리어 디자인 사무소에 찾아갔고, 허드렛일부터 시작해 결국 건축가가 되었다.

결국 붓 대신 컴퍼스와 자를 잡았지만, 동양화의 감성을 버리지 않는 않았다. 한옥 창살 문양을 확대, 복사해 공간 구성을 하기도 했고, 국수 가락을 차용한 건축 작업을 시도하기도 했다. 김백선 건축은 한마디로 '한국적 미감이 발현된 현대적 공간'이다. 그가 설계한 건물이나 디자인한 실내는 동양적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수묵화 같은 공간으로 나타난다.

김백선은 2013년 광주비엔날레의 주제전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공간디자인 프로젝트로는 롯데 초고층 월드타워의 레지던스와 커뮤니티 공간 설계, 대안공간 루프, 한남동 UN빌리지 빌라, 페럼타워 공용공간 설계, 삼성건설의 수주형 갤러리, 하나은행 프라이빗 뱅크, 베이스아이드 클럽하우스, 용산국제빌딩 주변 제3구역이 있다. 해외에도 진출했다. 베이징 문리버 타운하우스 빌라단지, 중국 당산호텔, 덴마크주재 한국대사관도 그가 설계했다. 아트디렉터로서 <세계도자비엔날레 여주관 세라믹하우스II>, <천년전주명품 '온'>, <설화문화전>, <서울디자인페스티벌>, <화풍: 경복궁으로의 초대> 등의 프로젝트 등을 진행했다.

동양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9년 '중앙미술대전' 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후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09년 디자인진흥원장상, 2010년 협회장상, 명가명인상을 수상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였다. 2007년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 자문위원, 2010년 인천국제공항 자문위원, 서울디자인재단 자문위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현재 백선디자인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3. 전시 주제

다양한 문화 스펙트럼을 펼치는 작가

김백선은 단순히 건축가 겸 디자이너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을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펼치고 있다. 동양화 전공을 살려 먹 드로잉을 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한다. 대학 실내건축과에서 학생을 가르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망라하는 그는 모든 시도를 '하나'로 본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차 한잔을 마시는 것을 예로 든다. 우리는 건축가가 지은 공간에서 디자이너가 제작한 식탁에 앉아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며 도예가가 빚은 찻잔에 농부가 수확한 차를 마신다.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에도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한다.

김백선은 1990년대 중반부터 '백선디자인'이라는 디자인, 건축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건축과 인테리어, 미술의 경계에서 자유로운 그는 그곳에서 규모가 큰 상업적 활동부터 동양적 향기가 짙은 무형문화재 장인과의 예술 협업까지 두루 이뤄내고 있다.

한국적 미감이 발현된 현대적 작품

김백선의 작품은 한마디로 한국적 미감이 발현된 현대적 작업이다. 대학 시절부터 공부했던 한국회화의 조형, 동양 철학의 사물을 관조하는 자연관이 작업의 뿌리가 되었다. 김백선은 전통적 원형 복원에만 치중하여 만든 가구들이 현대인의 삶의 공간에 어우러지지 못하는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이 그저 지키고 보존하는 대상이 아니라 누리며 그로부터 위로받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다시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반영, 그는 21세기 우리 삶의 공간 속에 소통 가능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그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자연과 사람 중심인 한국 전통에서 의미를 찾아 현대적인 가구를 디자인하였다. 김백선은 원래 최초의 가구는 자연이었다고 말한다. 동굴이 집이었고, 돌이 의자였고, 넓은 들판이 침대였고, 개천이 욕실이었다. 앉고 누울 수 있는 일련의 것들이 모두 가구였다. 자연과 사람의 본질을 담고 있는 소재들은 공간에 녹아나 공간 안에 함께 할 사람들의 내면세계에 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한다.

이탈리아 장인 정신으로 실현한 작품

김백선은 2013 년 학교재갤러리 개인전 이후 소중한 인연을 만날 기회를 가졌다. 그 첫 번째 회사는 프로메모리아다. 프로메모리아의 한 경영진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김백선이 디자인한 가구를 인상 깊게 봤다. 프로메모리아의 수장이자 디자이너인 로메오 소치는 그 경영진이 들고 간 학교재갤러리 개인전 도록을 통해 김백선의 디자인에 감명받아 그를 이탈리아로 초청했고,

이후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 김백선과 프로메모리아가 협업을 통해 제작한 가구 4 종 및 조명 6 종이 이번 전시에 선보인다.

두 번째 회사는 뽀로다. 김백선은 7 년여 전 서울의 고급 주택에 들어갈 가구의 작업을 위해 뽀로와 처음으로 만났다. 김백선은 뽀로와 협업해 제작한 17 종의 가구를 이번 전시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세번째 회사는 판티니다. 판티니는 김백선이 디자이너로서 발돋움을 시작하던 시기에 동경했던 수전 브랜드이다. 김백선은 판티니의 '아프리카를 위한 판티니'에 큰 감명을 받기도 했다. 판티니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한 6 종의 수전이 전시에서 선보여진다.

프로메모리아

프로메모리아의 뿌리는 19 세기 소치 가(家)의 가족 사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로부터 4 대에 걸쳐 내려온 그들만의 노하우는 1980 년대 말 로메오 소치(Romeo Sozzi)에 의해 지금의 프로메모리아로 재탄생되었다. 현재 프로메모리아는 로메오 소치와 그의 세 아들인 스테파노(Stefano), 다비데(Davide), 파올로(Paolo)가 운영한다. 문화적 가치의 고양을 추구하는 이들은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장인들의 우수한 실력을 기반으로 프로메모리아 고유의 뛰어난 품질을 유지하는 데에 열정을 쏟는다. 프로메모리아는 밀라노 쇼룸을 시작으로 런던, 파리, 뉴욕, 모스크바 등 세계 주요 도시에 독립 매장을 열었으며 고품격의 가구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프로메모리아의 브랜드 이름에는 명확한 소명이 담겨있다. 풍부한 재능과 아이디어, 기술이 잊혀지지 않도록 보존하며, 장인과 기업인, 연속성과 유일성, 엄격함과 유연함, 규칙과 예외의 만남에 가치를 두고자 하는 것이다.

뽀로

뽀로는 1925 년 고품질 가구 제작의 산실인 이탈리아 브리안자(Italy Brianza) 지역에서 설립된 국제적인 브랜드다. 뽀로의 가족 구성원이 그들 자신의 경험과 재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직접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뽀로의 아트 디렉터로서 피에르 리쏘니(Piero Lissoni)가 1989 년부터 줄곧 협력해 왔으며, 그 외에도 많은 건축가 및 디자이너와 협업을 하고 있다. 회사 고유의 철학을 가지고 현대적인 제조 기술과 전통적인 수공 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최상의 품질을 갖춘 가구를 생산하는 뽀로는 국제시장에서 지속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판티니

판티니는 1947 년 조반니 판티니(Giovanni Fantini)와 에르실리오 판티니(Ersilio Fantini) 형제가 설립한 가족 회사이다. 판티니는 일에 대한 열정, 윤리, 직업의식, 인간에 대한 존중 등 여러 근본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디자인, 기술의 혁신으로 정교하고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그들은 개념적으로 우수하고 현대적으로 우아한 디자인으로 수도꼭지 및 샤워 시스템의 새로운 컬렉션을 만들어 내고 있고, 이에 더해 연구 및 개발에 힘을 쏟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현재 전 세계 오십여 개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에 출시된 '이 발로키(I Balocchi)'시리즈는 수전에 처음 색채를 가미한 혁신적인 컬렉션이다. 아프리카 부룬디공화국 지역에 식수를 공급해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 선행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4. 대표 작품

**** 이미지 사용시 사진가 이름 및 카피라이트 명시 부탁드립니다.**



Aurora / floor lamp, 2016, hammered bronze, 25x25x178 cm
 Design by Kim Paik Sun, Manufactured by PROMEMORIA, Photo by Daniele Cortese

디자인은 김백선, 제품 생산은 프로메모리아가 담당했다. 쇠, 조명 등 각각을 담당하는 분야별 장인과 이를 총괄하는 마스터가 참여해 프로메모리아 고유의 품질을 현실화했다.

자연의 감성을 그대로 녹여낸 조명이다. 빛과 겨울 산이 디자인의 모태가 되었다. 겨울 설산을 오를 때 보았던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빛의 감성, 하얀 눈에 투영되는 빛의 온도, 그 눈이 토해내는 빛의 느낌을 담았다.

못이나 나사를 사용하지 않고 목재를 연결하는 짜 맞춤 방식을 쇠에 적용했다. 조명을 켜면 한쪽 벽에 초의 형상이 드러난다. 초가 점점 녹아내리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 내부에 프로젝션 장치를 달았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연꽃이 피어나는 듯한 형상으로 보이는 조명 또한 아름답다.



Anil / arm chair, 2016, leather, bronze, 101x71.9x71 cm
 Design by Kim Paik Sun, Manufactured by PROMEMORIA, Photo by Daniele Cortese

디자인은 김백선, 제품 생산은 프로메모리아가 담당했다. 가죽과 쇠를 담당하는 분야별 장인과 이를 총괄하는 마스터가 참여했다. 자연 속에 앉아 산을 바라보며 쉴 때 어울리는 오브제를 지향했다.

모든 선과 면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얇은 두께로 현실화했다. 소재가 구부러지고, 서로 얹혀있는 모양새는 브론즈에서 오는 육중함을 덜어준다. 등받이 뒤의 가죽 손잡이를 보고 있으면 금세 들고 훌쩍 떠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5. 전시 서문 및 작가 노트

김 백 선

겨울 산은 아름답다. 나는 겨울 산행을 특히 좋아한다. 흙빛에 거뭇거뭇 돌이 박혀있고 풀이 흠뻑 젖은 땅을 보고 걷는 일이 즐겁다. 펄펄 쏟아져 무릎까지 차오른 함박눈 속을 첨벙첨벙 걸으면 발걸음은 나로 하여금 무수한 생각을 허공에 펼치고 지우고 다시 떠올리기를 반복하게 한다. 이윽고 곧 명상의 상태처럼 자연 그 자체에 빠져들게 된다.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던 그 경험은 무의식의 수면 아래 커커이 쌓여 있다가 작업에 골몰할 때 저절로 떠오르곤 한다. 자연에 머물렀던 시간은 무수한 일상의 경험과 어우러져서 작업에 접근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 자연의 변화를 살피는 것은 마침내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공간에 대한 명확한 분석, 작가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먹을 적신 붓과 연필, 목탄의 드로잉은 선과 면 자체로 작품이 되기도 하고, 집을 지어내기도 하며, 공간 안에 가구와 생활 소품을 놓는 선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그동안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탐색하기 위해 한국의 미감을 발현한 현대적 공간을 만드는 작업을 펼쳐왔다. 이번에는 공간 안에 '놓이는 것'을 통해 그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또 다른 작업이 되었다. 모든 것이 같은 선상에 놓여있으면서도 서로 달랐다. 사고의 흐름을 역행해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뒤섞어 보기도 하며 첫 시작의 실마리를 찾았다.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풀어내고 그것을 예술의 가치에 투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공간은 존재하는 것들이 뿜어내는 기의 흐름이 담겨있는 곳이다. 디자인을 하고 건축을 하고 아트 디렉팅을 하는 일의 근원은 결국 자연과 예술을 향한 경배와 그것을 탐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지난 시간 한국 무형문화재 장인과의 협업을 통해 '시간과 기다림에 대한 철학',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지켜내는 그들의 강기(剛氣)'를 보았다. 전통문화에 대한 배움 뿐만 아니라 삶, 정신, 그리고 사람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무형문화재 장인들이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고자 하는 것은 고귀한 선택이다. 기술적 우수성만을 평가하기 이전에 그들이 갖추고 있는 정신적인 지향점의 가치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이번 작품이 나오기까지 세계적 이탈리아 브랜드 프로메모리아, 뽀로, 판티니와 함께했다. 일년여간 그곳의 장인과 협업하며 그들의 사명감, 열정, 헌신적인 노력을 보았다. 작업의 사무적, 기술적 진행을 넘어 그들이 지향하는 정신세계가 모든 과정과 결과물에 투영되게 하는 집중력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인'이라는 말은 개인, 국가 혹은 시대를 초월하여 칭송 받을 만한 단어인 듯하다. 이들과 첫 만남부터 작품이 나오기까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지금은 아련한 향수로 느껴진다.

모서리를 만들어내는 선의 유려함, 수평재와 수직재의 만남이 만들어내는 결구법, 부분 부분을 이루는 다른 소재와의 어우러짐에서 공존의 미덕을 생각해 본다. 조명의 몸체를 보며 땅에 힘차게 뿌리 내린 나무를 떠올리고, 빛이 만들어내는 형체에서 이른 봄 활짝 핀 매화의 모습을 발견한다. '서로 사귀어 오감'이라는 통섭의 뜻이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6. 약력

1966	목포 출생
199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2004-2010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겸임교수
2005	세계도자비엔날레 여주관 세라믹하우스II 연출 감독
2007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 자문위원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아트디렉터 세계도자비엔날레 여주관 세라믹하우스III 연출 감독
2007-2009	천년전주명품 '온' 아트디렉터
2008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아트디렉터
2008-2012	한국실내건축가협회 부회장
2009	문화재청 자문위원: 서울 5대궁 살리기 자문위원
2010	인천국제공항 자문위원 서울디자인재단 자문위원 문화재청 자문위원: 서울 5대궁 살리기 자문위원
2011	설화문화전 아트디렉터
2012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예술 감독 현재 백선디자인 스튜디오 소장

주요 개인전

2016	학교재 갤러리, 서울
2013	학교재 갤러리, 서울
1991	웅 갤러리, 서울
1990	얼 갤러리, 서울 갤러리 도울, 서울

주요 단체전

2011	백선디자인 소품전,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서울
2010	화풍: 경복궁으로의 초대, 경복궁, 서울 묵향 - 천년전주명품 '온',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이벤트홀, 서울
2007-2009	'온' 천년전주명품,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서울
2007	세계실내디자인대회 초대작가, 부산 디자이너초이스,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서울

- 2006-2008 한국건축가협회 초대전, 서울
 1999 중앙미술대전 대상 작가 초대전, 호암아트홀, 서울
 1998 한국현대미술 대상 작가 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3 전환시대의 모색, 예술의전당, 서울
 1992 김백선 · 송금화 2인전,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안성
 한국현대회화, 호암아트홀, 서울
 1991 젊은모색 3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수상

- 2012 명가명인상
 2011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올해의 디자이너상
 2010 코리아 골든 스케일 디자인 어워드 협회장상
 2009 코리아 골든 스케일 디자인 어워드 디자인진흥원장상
 코리아 골든 스케일 디자인 어워드 갈매건축상
 2008 코리아 골든 스케일 베스트 디자인 어워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아시아 태평양 공간디자이너협회 어워드, 싱가포르
 2007-2010 명가명인상
 2007 코리아 골든 스케일 디자인 어워드 건설교통부장관상수상
 2006 마루 디자인 어워드
 2003 명가명인상
 1989 중앙미술대상, 호암미술관, 서울

주요프로젝트

- 한남동 UN빌리지 빌라 설계, 서울
 문리버타운하우스 빌라단지 설계, 베이징
 청담동 품타워 설계, 서울
 중국 북경 전통주거단지 설계, 베이징
 분당 K씨 주택 설계, 분당
 대안공간 루프 설계, 서울
 고수련 한의원 설계, 서울
 염곡동 P씨 주택 설계, 서울
 당산 호텔 인테리어설계, 당산, 중국
 가평 L씨 주택 설계, 가평
 이태원 H씨 주택 설계, 서울

뉴폴더 스튜디오 설계, 김포
미술관 단지 프로젝트, 경기
제 4회 세계 도자기 비엔날레 여주관 세라믹하우스3 설계, 여주
동양건설 화성 동탄 타운하우스 설계, 화성
롯데건설 화성 동탄 타운하우스 UNIT 설계, 화성
소요 클리닉 설계, 서울
베이사이드 클럽하우스 설계, 서울
용산국제빌딩 주변 제3구역 UNIT설계, 서울
청담동 T-LOUND 신축설계, 서울
덴마크 주재 한국 대사관 설계, 헬레루프, 덴마크
경동건설 해운대 우동 UNIT 설계, 부산
패럴타워 인테리어 설계, 서울
삼성건설 래미안 갤러리 설계, 서울
하나은행 프라이빗 뱅크 설계, 서울
롯데월드타워 커뮤니티공간 UNIT, 서울